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최 윤 희†
광운대학교

김 순 자
루터대학교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가정 분포가 높은 경기, 서울, 전남, 충남에 소재하는 10개 초, 중, 고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13세-20세의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차이에서는 학교형태와 학업성적, 한국어실력, 국가소속감이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진로성숙도의 경우 성별, 학교형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한국어실력 좋을수록 국가 소속감의 이중적 자기규정의 변인이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성숙도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은 '자기수용성'과 '미래 확신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에서 주체성은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미래확신성은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주체성은 진로성숙도의 관여성(-), 자기수용성은 진로성숙도의 관여성(-), 주도성은 진로성숙도의 독립성(+), 미래확신성은 진로성숙도의 성장(+), 자기수용성은 진로성숙도의 타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고, 자기수용성과 미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학교적응과 진로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차이에 따른 개별화를 통하여 이중문화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중적 자기규정에 기반을 둔 자아정체감과 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대한 보다 많은 상담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국제결혼가정 자녀, 다문화청소년, 자아정체감, 진로성숙도

* 본 논문은 최윤희(2010)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여 재분석 한 것임.
† 교신저자 : 최윤희,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E-mail : rainbow0207@naver.com

우리사회는 국제화·개방화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2011)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 4,710건으로 전체 혼인건수의 1.2%에서 2010년에는 34,235건으로 전체 혼인건수의 10.5%로 증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난 2008년 2만 174명에서 2011년 3만890명으로 최근 3년간 92.8%가 급증하면서,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3만40명으로 지난 2005년 6121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초등학교생이 2만 3602명(7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4814명(16%), 고등학생은 1624명(5.4%)순이었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이 2만 7001명(8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자료에 따르면 어린 세대로 갈수록 다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영아 3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예상되어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사회복지시스템과 교육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다문화청소년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학습결손과 학교생활 부적응,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 행동과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외모 및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유난영, 2008; 홍영숙, 2007; 전경숙, 2008).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특히 학교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를 둔 많은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들은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이질감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차별이나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하성 외,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심리·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어머니의 국적이 베트남, 중국, 필리핀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이 상대적으로 크다(이영주, 2007; 김경란,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와 가족공동체에서 이중문화의 존재로 인한 갈등으로 문화적 인식의 차이와 부적응 및 부조화에 문제를 갖게 된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의 성격을 지닌 국제결혼 가정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김경신·이선미, 1998; 홍영숙, 2007). 이에 따라 기존의 다문화국가에서 흔히 보여주듯이 다문화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은 지역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영주(2007)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부적응이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자아정체감 위기를 맞거나 나아가 직업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논하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능력 및 기초 학습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6)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중학교 중퇴율은 일반 청소년의 15배로 매우 높았다. 전경숙(2008)의 교육지원정책과제에서도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1/3정도가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율은 27% 정도였고, 중학생 33.7%의 경우가 초등학생 20.2%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중, 고등학생의 경우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놀림의 문제로, 중학생의 경우 언어발달의 문제로 인한 학교공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학업중단의 충동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탐색 및 교육보다는 심리·사회적³⁾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우리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김경관, 2007; 이영주, 2007).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경제적 여건, 직업포부, 중요한 타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탐색과 준비의 기회가 많지 않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6)의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실태 조사에서 미래 희망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일반학교 학생의 경우 53.6%가 '희망적이다', 23.2%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대안학교의 학생의 경우 50.0%가 '그저 그렇다', 49.2%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대답하여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하여 인식하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별화 교육 및 미래의 가능성을 구체화 시켜주는 기회가 적고, 다문화청소년의 이와 관련된 연구도 미흡하다.

이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문제는 일반 청소년이 겪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문화의 차이, 언어의 미숙 때문에 부적응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부모사회,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높여주고 소속감을 높여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rikson(1968)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이해하면서 '정체감'을 형성해 간다고 했다. 또한 박아청(1996)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이 겪는 각 인생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관련된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신체적, 사회적 감각이라고 하였다. 즉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자아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들을 자기의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수정되어 가는 것이다. Holland(1977)는 개인의 정체감은 모든 사람의 목표, 관심, 재능에 대한 분명하고 안정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진로선택은 정체감 발달과 연관 있으며, 정체감 혼란은 진로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Harren(1979)은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자아정체감이 낮고 부족할수록 진로결정력이 낮고 미결정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Tiedeman(1961)은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간에는 높은 관련을 나타내는 까닭에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만족감과 성공감을 크게 나타낸다고 하였다. Munley(1975)도 자아정체감

을 높게 형성하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더 잘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Galinsky & Fast(1966)는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종종 진로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김봉환, 1997; 김길정, 2003, 제인용). 그러나 자아정체감이 잘못 형성된다면 당연히 현재나 미래의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가치, 가치관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박아청, 1996; 최정아, 2005).

진로성숙은 전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준비 정도와 대처 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강호경, 2003; 유순화·강승희·윤경미, 2004; 최희경, 2006).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의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 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Gribbons & Lohnes(1964)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계획에서의 준비도의 개념으로 보고 진로 성숙 수준은 개인의 내적·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보았으며, Hoyt(1997)는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며 이 둘을 현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의 정도가 곧 진로성숙이며 이때 이것의 적합을 판단하는 준거는 개인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였다(박순희, 2000). 이와 같이 진로성숙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발달적 생애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할 위치, 발달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직업적 준비의 정도라 할 수 있다(남숙정 외, 2008).

Crites(1978)는 진로발달을 진로성숙으로 보

았으며, 그의 이론적인 배경은 Super(1953)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는 진로성숙의 개념 정의와 측정을 위해 진로성숙도(CMI)를 개발하였다. 진로성숙이란 개념을 직업성숙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라고 보고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수준으로 개념화하고, Super의 성향, 직업정보, 계획, 현명성의 영역을 그의 진로성숙 모형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진로발달이론의 주요 개념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요인을 설정하고 16개의 변인을 설정하여 진로성숙 모형을 제시 하였다(김현옥, 1989; 김길정, 2003; 김수리, 2004. 제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점사의 태도척도의 5가지 하위요인을 활용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을 통하여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남동호, 1993)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이 밝혔으며, 한영준(2006)과 최정아(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으면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미래 확신성과 진로성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김길정(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양리리(2003)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을 높게 형성하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계획하고 직업준비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서봉연(1979)은 진학이나 취업에서 장애전망이 밝은 집단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정체감의 발달

이 진로성숙의 발달과 동반적으로 변화해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다(Blustein 외, 198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지지해 준다(김미옥, 1994; 김현옥, 1989; 변기흠, 2001; 채가란, 1999; 김희진, 2001, 재인용).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폭넓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담지원과 대책은 주로 저연령 자녀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치중되어 있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아정체감 형성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과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정하성 외, 2007; 이영주, 2007; 채가란, 1999; 최정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주역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연구문제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하위 변인 중 진로성숙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결혼 가정 빈도가 높은 경기도와 서울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주, 청주 지역소재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13세)부터 고등학교3학년(20세)까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12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자아정체감,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자가 65명(52.0%), 여자가 60명(48.0%)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가 8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N)	비율 (%)
성 별	남	65	52.0
	여	60	48.0
학교급	초·중학교	85	68.0
	고등학교	40	32.0
학교형태	일반학교	85	68.0
	대안학교	40	32.0
학업성적	상	39	31.2
	중	69	55.2
	하	17	13.6
한국어 실력	상	80	64.0
	중	29	23.2
	하	16	12.8
국가 소속감	한국인	46	36.8
	외국인	24	19.2
	둘다	55	44.0
전 체		125	100.0

명(68.0%), 고등학교가 40명(32.0%)으로 나타났다. 학교형태별로는 일반학교 85명(68.0%), 대안학교에 40명(32.0%)으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수가 많았고, 학업성적은 상위권 39명(31.2%), 중위권 69명(55.2%), 하위권 17명(13.6%)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한국어 실력은 상 80명(64.0%), 중 29명(23.2%), 하 16명(12.8%)으로 나타났다. 국가 소속감은 한국인과 외국인 둘다 55명(44.0%), 한국인 46명(36.8%), 외국인 24명(19.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의 국적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국적은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남자 85명(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일본 26명(20.8%), 몽골 6명(4.8%), 미국 6명(4.8%), 중국 1명(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 50명(40.0%)로 이는 특정 종교단체의 국제결혼에 의한 것이 많았고, 다음은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자 40명(32.0%), 중국 25명(20.0%), 몽골

표 2. 연구대상자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의 국적

국적	부		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한국	85	68.0	40	32.0
일본	26	20.8	50	40.0
중국	1	0.8	25	20.0
몽골	6	4.8	5	4.0
미국	6	4.8	0	0
베트남	0	0	1	0.8
러시아	0	0	1	0.8
필리핀	0	0	1	0.8
기타	1	0.8	2	1.6
합계	125	100	125	100

5명(4.0%),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이 각 1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서울 수도권과 광주, 청주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등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방문, 우편 배포 후 회수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54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기제가 부실하거나 누락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무응답이 많은 5부의 설문지와 자료로, 총 10개 학교 125부가 본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시간은 연령에 따른 차이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 읽는 능력에 따라 약 30-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자아정체감 검사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승국(1999)이 일부 보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8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1='매우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주어 총점을 자아정체감 점수로 산출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 . 92였으며, 6개의 하위요인은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인 '주체성' .76,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정도인 '자기수용성'은 .83,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인 '미래확신성'은

.77,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인 '목표지향성'은 .80,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인 '주도성'은 .74,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친밀성'은 .75의 신뢰도를 보였다.

진로성숙도 검사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rites(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CMI)를 김현옥(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rites가 개발한 CMI척도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검사에서는 태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진로 선택 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47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주어 총점을 자아정체감 점수로 산출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 .76였으며, 5개의 하위요인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 '결정성'은 .71, 진로선택 과정에서 능동적 참여의 정도인 '관여성'은 .71,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인 '독립성'은 .74,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의 정도인 '성향'은 .69, 진로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인 '타협성'은 .69의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17.0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와 각 척도의

하위변인 신뢰도를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모든 통계치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 방법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먼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은 평균 3.44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수용성(M=3.9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제성(M=3.54), 미래확신성(M=3.36), 친밀성(M=3.33), 주도성(M=3.32)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지향성(M= 3.31)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향연(2007)은 경남지역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평균이 자기수용성(M=3.50), 주제성(M=3.32), 미래확신성(M=3.01), 주도성, 친밀성(M=

표 3.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

변수	구분	자아정체감						전체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성별	남	3.49±.553	3.78±.664	3.35±.616	3.31±.623	3.23±.537	3.26±.597	3.39±.457	
	여	3.59±.589	4.01±.688	3.36±.680	3.31±.722	3.41±.613	3.41±.729	3.50±.533	
		<i>t-value(p)</i>	-1.931(.054)	-1.914(.058)	-1.108(.264)	.028(.867)	-1.786(.077)	-1.255(.212)	-1.182(.240)
학교급	초·중학교	3.54±.592	3.92±.696	3.29±.659	3.30±.645	3.31±.545	3.32±.694	3.43±.494	
	고등학교	3.53±.527	3.83±.659	3.51±.594	3.33±.727	3.34±.655	3.37±.605	3.47±.503	
		<i>t-value(p)</i>	.106(.916)	.658(.512)	-1.804(.074)	-.194(.847)	-.244(.808)	-.424(.672)	-.462(.645)
학교 형태	일반학교	3.52±.601	3.98±.668	3.33±.693	3.33±.696	3.36±.626	3.37±.734	3.47±.554	
	대안학교	3.57±.502	3.69±.682	3.41±.532	3.27±.617	3.23±.463	3.27±.488	3.38±.337	
		<i>t-value(p)</i>	-.481(.631)	2.239(.027)	-.596(.552)	.448(.655)	1.120(.265)	.799(.426)	.998(.320)
학업 성적	상	3.93±.491 ^b	3.96±.757	3.46±.671	3.47±.720 ^b	3.49±.697 ^b	3.37±.824	3.57±.578 ^b	
	중	3.47±.474 ^{ab}	3.86±.639	3.38±.599	3.30±.584 ^{ab}	3.29±.464 ^{ab}	3.32±.578	3.43±.412 ^{ab}	
	하	2.93±.446 ^a	3.83±.706	3.03±.697	2.98±.782 ^a	3.05±.619 ^a	3.31±.625	3.21±.539 ^a	
		<i>F-value(p)</i>	27.767***(.000)	.324(.724)	2.821(.063)	3.356(.038)	3.856(.024)	.062(.940)	3.329(.039)
한국어 실력	상	3.53±.615	4.00±.680 ^b	3.36±.693	3.37±.697	3.39±.623	3.37±.756	3.50±.548	
	중	3.53±.526	3.85±.609 ^{ab}	3.32±.615	3.27±.565	3.25±.497	3.39±.489	3.42±.395	
	하	3.55±.423	3.41±.645 ^a	3.41±.444	3.04±.669	3.06±.406	3.07±.335	3.22±.295	
		<i>F-value(p)</i>	.010(.990)	5.322**(.006)	.096(.908)	1.756(.177)	2.467(.089)	1.474(.233)	2.201(.115)
국가 소속감	한국인	3.58±.570	3.89±.686	3.32±.583	3.20±.673	3.33±.514 ^b	3.21±.705	3.39±.471	
	외국인	3.49±.613	3.63±.695	3.28±.560	3.29±.563	3.06±.425 ^a	3.21±.715	3.30±.426	
	둘다	3.52±.558	4.01±.654	3.42±.727	3.40±.705	3.43±.659 ^b	3.49±.583	3.55±.529	
		<i>F-value(p)</i>	.250(.779)	2.717(.070)	.555(.575)	1.169(.314)	3.396**(.037)	2.777(.066)	2.474(.088)
전체		3.54±.570	3.89±.683	3.36±.645	3.31±.669	3.32±.580	3.34±.665	3.44±.496	

^ap<.05, ^{**}p<.01, ^{***}p<.001

Duncan : a<b

3.19), 목표지향성(M=3.01)의 순으로 모든 하위 항목은 평균 3.0 이상이였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성이 가장 높고 주어진 과업을 실행하려는 의지의 정도인 목표지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다문화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학교형태에 따라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별 자기수용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일반학교의 경우 대안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는 전반적인 자아정체감과 하위요인별 주제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사후검정 결과 비교적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전반적인 자아정체감과 하위요인별 주제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실력에 따라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별 자기수용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사후검정 결과 비교적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자기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성별, 학교급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국가 소속감에 따라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별 주도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한국인이나 한국인/외국인 둘 다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분석결과 먼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진로성숙도는 평균 3.22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로는 관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립성($M=3.43$), 성향($M=3.34$), 타협성($M=3.26$)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성($M=2.92$)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향연(2007)은 경남지역 중학생의 진로성

숙도 평균인 독립성($M=3.59$), 관여성($M=3.57$), 성향($M=3.23$), 타협성($M=2.82$), 결정성($M=2.81$)의 순으로 진로선택의 능동적 참여인 관여와 독립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이 높고,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 결정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치하였다. 이것은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이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관여성, 타협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관여성, 타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관여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초·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형태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관여성, 독립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일반학교의 경우 대안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관여성,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독립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사후검정 결과 비교적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실력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관여성, 독립성, 성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표 4.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변수	구분	진로성숙도					전체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성별	남	2.90±.415	3.25±.583	3.37±.494	3.28±.593	3.18±.372	3.23±.393	
	여	2.93±.371	3.66±.528	3.50±.556	3.42±.597	3.34±.510	3.41±.366	
		<i>t-value(p)</i>	-4.26(.671)	-4.100***(.000)	-1.409(.161)	-1.298(.197)	-2.075*(.040)	-2.741**(.007)
학교급	초·중학교	2.91±.367	3.53±.521	3.45±.481	3.35±.574	3.29±.416	3.35±.362	
	고등학교	2.93±.449	3.26±.691	3.40±.617	3.34±.650	3.19±.513	3.25±.443	
		<i>t-value(p)</i>	-.321(.749)	2.432*(.016)	.453(.651)	-.125(.900)	1.098(.275)	1.230(.221)
학교형태	일반학교	2.92±.383	3.60±.528	3.55±.494	3.41±.602	3.31±.376	3.40±.366	
	대안학교	2.91±.420	3.12±.597	3.17±.505	3.20±.565	3.14±.564	3.14±.386	
		<i>t-value(p)</i>	.068(.946)	4.476***(.000)	3.988***(.000)	1.881(.062)	1.972(.051)	3.687***(.000)
학업성적	상	2.90±.409	3.45±.728	3.61±.606 ^b	3.45±.690	3.33±.526	3.39±.478	
	중	2.91±.362	3.37±.540	3.34±.461 ^a	3.32±.551	3.26±.426	3.28±.360	
	하	2.97±.492	3.74±.310	3.39±.516 ^c	3.21±.534	3.08±.299	3.31±.260	
		<i>F-value(p)</i>	.192(.826)	2.729(.069)	3.255*(.042)	1.189(.308)	1.924(.150)	.970(.382)
한국어실력	상	2.91±.384	3.64±.496 ^b	3.55±.509 ^b	3.44±.622 ^b	3.31±.391	3.42±.365 ^b	
	중	2.97±.401	3.21±.584 ^a	3.27±.549 ^a	3.25±.577 ^a	3.21±.575	3.19±.415 ^a	
	하	2.84±.436	2.90±.579 ^a	3.12±.362 ^a	3.06±.367 ^a	3.06±.433	3.03±.262 ^a	
		<i>F-value(p)</i>	.546(.581)	16.860***(.000)	7.043**(.001)	3.281*(.041)	2.301(.105)	9.482***(.000)
국가소속감	한국인	2.88±.564	3.35±.588	3.38±.485 ^b	3.27±.577 ^b	3.30±.447 ^b	3.28±.347 ^b	
	외국인	2.91±.433	3.33±.477	3.22±.531 ^a	3.14±.397 ^a	3.04±.407 ^a	3.16±.325 ^a	
	둘다	2.95±.404	3.57±.623	3.57±.527 ^b	3.49±.653 ^b	3.31±.447 ^b	3.42±.426 ^b	
		<i>F-value(p)</i>	.317(.729)	2.381(.097)	4.330*(.015)	3.657*(.029)	3.770*(.026)	4.323*(.015)
전체			2.92±.393	3.44±.592	3.43±.527	3.34±.597	3.26±.450	3.32±.391

^a $p < .05$, ^b $p < .01$, ^c $p < .001$

Duncan : $a < b$

($p < .05$), 사후검정 결과 비교적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관여성, 독립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소속감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독립성, 성향, 타협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사후검정 결과 한국인과 외

국인 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와 하위요인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6개 하위요인(주제성, 자기수용

표 5.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변수	하위 요인	진로성숙도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진척
자 아 정 체 감	주체성	.010	.116	.246**	.380***	.417***	.347***
	자기수용성	.210*	.537***	.364***	.519***	.464***	.597***
	미래확신성	.367***	.244**	.326***	.661***	.405***	.551***
	목표지향성	.251**	.400***	.292**	.505***	.387***	.529***
	주도성	.249**	.447***	.404***	.563***	.439***	.606***
	친밀성	0.111	.333***	.167	.448***	.292**	.409***
	전체	.294**	.491***	.398***	.68***	.519***	.685***

* $p < .05$, ** $p < .01$, *** $p < .001$

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과 진로성숙도의 5개 하위요인(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전반적인 진로성숙도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별 주도성($r=.606$), 자기수용성($r=.597$), 미래확신성($r=.551$), 목표지향성($r=.529$), 친밀성($r=.409$), 주체성($r=.347$) 순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각 하위요인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은 미래확신성($r=.367$), 목표지향성($r=.251$), 주도성($r=.249$), 자기수용성($r=.210$)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보였고, 관여성은 자기수용성($r=.537$), 주도성($r=.447$), 목표지향성($r=.400$), 친밀성($r=.333$), 미래확신성($r=.244$)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독립성의 경우 주도성($r=.404$), 자기수용성($r=.364$), 미래확신성($r=.326$), 목표지향성($r=.292$), 주체성($r=.246$)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향은 미래확신성($r=.661$), 주도성($r=.563$), 자기수용성($r=.519$), 목표지향성($r=.505$), 친밀성($r=.448$), 주체성($r=.380$)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외에도 타협성은 자기수용성($r=.464$), 주도성($r=.439$), 주체성($r=.417$), 미래확신성($r=.405$), 목표지향성($r=.387$), 친밀성($r=.292$)의 순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정돈된 '성향'과 진로선택 시 욕구와 현실사이의 타협하는 '타협성'에 관련영역이 많음을 나타냈다.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 항목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영준(2006), 정미란(2004), 김길정(2003), 신미자(2002), 김은진(2001), 양은정(2002), 김연미(1997), 김미옥(1993)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9.7%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표 6.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전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p	F	R^2
진 로 성 숙 도	(상수)		8.050	.000		
	주체성	-.101	-1.262	.209		
	자기수용성	.294	3.368**	.001		
	미래확신성	.320	3.889***	.000	21.424***	.497
	목표지향성	.097	1.094	.276		
	주도성	.270	2.766**	.007		
	친밀성	-.027	-3.30	.742		

** $p < .01$, *** $p < .001$

으로 분석되었다($F=21.424,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도성이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미래확신성이 높아지면 진로성숙도는 .32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수용성이 높아지면 진로성숙도는 .294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진로성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확신성이나 자기수용성, 주도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각 하위요인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먼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865,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미래확신성은 결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주체성은 결정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미래확신성이 높아지면 결정성은 .464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체성이 높아지면 결정성은 .34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확신성이나 주체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관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0.9%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0.248,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자기수용성은 관여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주체성은 관여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5$). 즉, 자기수용성이 높아지면 관여성은 .42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체성이 높아지면 관여성은 .20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의 '주체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수용성이나 주체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9%이고, 회귀식은 통계

표 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하위요인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p	F	R^2
결정성	(상수)		9.879	.000	5.865***	.191
	주체성	-.342	-3.379**	.001		
	자기수용성	.059	.530	.597		
	미래확신성	.464	4.442***	.000		
	목표지향성	.129	1.146	.254		
	주도성	.128	1.029	.306		
관여성	(상수)		4.993	.000	10.248***	.309
	주체성	-.207	-2.208*	.029		
	자기수용성	.429	4.201***	.000		
	미래확신성	.041	.424	.672		
	목표지향성	.073	.700	.486		
	주도성	.191	1.664	.099		
독립성	(상수)		5.988	.000	5.510***	.179
	주체성	-.005	-.045	.964		
	자기수용성	.192	1.726	.087		
	미래확신성	.166	1.574	.118		
	목표지향성	-.020	-.172	.863		
	주도성	.320	2.565*	.012		
성향	(상수)		2.004	.047	23.860***	.525
	주체성	-.096	-1.244	.216		
	자기수용성	.155	1.830	.070		
	미래확신성	.499	6.234***	.000		
	목표지향성	.102	1.181	.240		
	주도성	.165	1.734	.086		
타협성	(상수)		5.582	.000	8.747***	.273
	주체성	.176	1.830	.070		
	자기수용성	.239	2.278*	.025		
	미래확신성	.129	1.301	.196		
	목표지향성	.038	.358	.721		
	주도성	.150	1.279	.203		
	친밀성	-.032	-.331	.741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510$,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주도성은 독립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주도성이 높아지면 독립성은 .320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52.5%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3.860$,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미래확신성은 독립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미래확신성이 높아지면 성향은 .49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의 '성향'의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확신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타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27.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747$,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자기수용성은 독립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자기수용성이 높아지면 성향은 .239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성숙도의 '타협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수용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논 의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감 중에서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등을 인정하

는 '자기수용성'이 가장 높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고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인 '목표지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인(2001)의 서울 소재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하위요인에서 자기수용성이 가장 높고, 목표지향성이 가장 낮은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형태, 학업성적, 한국어실력, 국가소속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학교형태별 일반학교나 비교적 학업성적 및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선진(2007)의 국제결혼가정과 일반아동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자아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질수록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서 실시되는 한국어수업과 학업지도에서 차별화와 특성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즉, 상대적으로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교육의 강화와 이중적 국가소속감에 대한 올바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소외나 부정적 자아상을 갖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진로성숙도의 진로선택과정에서 능동적 참여 정도인 '관여성'이 높았고,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 '결정성'이 낮다는 점을 통해 진로의 방향에 대한 교육과 비전확립을 통한 자기실현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급, 학교형태, 학업성적, 한국어실력, 국가소속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여자나 초·중학교, 학교형태별 일반학교나 비교적 학업성적 및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성숙도와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요인 별로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으면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옥(1989), 이영숙(1997), 조성권(2000) 등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결정성은 미래 확신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신의 장래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자신의 역할이나 환경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선택의 능동적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관여성에서는 자신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성의 태도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지배하며 영향을 받는 주체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성에서도 주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향에는 미래 확신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가 미래에 대한 태도에 따

라 성향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정아(2005)의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미래확신성과 진로성숙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타협성은 자기수용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서의 타협으로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중국적으로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체성, 주도성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서봉연(1979), 김길정(2003), 최정아(2005), 한영주(2006) 등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을 지지해 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의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청소년을 소수 집단이나 사회 복지의 대상이 아닌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역량을 지닌 사회변동의 주체라는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아닌 문화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교사나 상담자가 필요하며,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적 자기규정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므로 문화와 정체성의 통합적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와 함께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의 학교

형태 및 한국어실력을 고려한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존의 일반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의 다문화가정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향후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다문화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적 자기규정에 기반한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와 관련한 후속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청소년의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 및 새터민이나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포함한 다른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제한과 지역적 편향으로 결과를 전국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전국의 균등된 표본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호경 (2003).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란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 이선미(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부양 부담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93-106.
 김길정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옥 (1993).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옥 (1994).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 (1997). 진로상담에서의 심리검사의 활용.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수리 (2004).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미 (199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인간이해, 19, 69-88.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22, 97-116.
 김현옥 (1989). 청소년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남동호 (199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희 (2000). 중학생의 내외통제성 및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140-162.
 변기흠 (2001). 여중생의 자기존중감 및 자아정체

- 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 (1979). 한국과 서독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제2집, 한국 사회과학연구소.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자 (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가 비행경험이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리리 (2003). 화교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정 (2002). 고등학생의 진로 미결정과 자아정체감 및 인생목적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난영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순화 · 강승희 · 윤경미 (2004).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수준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1111-1123.
-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배근 (2006).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 실태 지원방안: 혼혈청소년도 당당한 한국인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 (1997).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정책과제. 경기도: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제7호.
- 정미란 (200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하성 (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한국학술정보(주).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다문화청소년이 해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서울: 양서원.
- 조성권 (2000). 자체부자유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 성숙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가란 (1999).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 (200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경 (200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의사결정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0). 국제결혼현황. 통계청.
- 김승권외(2010). 다문화가족실태조사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영준 (2006).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향연 (2007). 경남 지역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 Blustein, D. L., & Phillips, S. D. (1990). Relation Between Ego Identity Statuses &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7, 160-168.
- Blustein, D. L., & Walbridge,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8, 39-51
- Blustein, D. L. (1994). "Who am I": The question of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se*. 139-153.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Blustein, D. L., & Noumair, D. A. (1996).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pl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433-441.
- Crites. J. 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and us'r manual*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 Metho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y Issue. Monograph 1, 1-17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rikson. E. H. (1963). *Identity youth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McMilan Co. \$ Free.
- Galinsk, Y., & Fast, M. D. (1966). Vocational choice as a focus of the identity 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 89-92.
- Ginzberg, E.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Gribbons, W.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3-20.
- Harre, R., & Lamb, R. (1983).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s; MIT Press.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Counselor instructor guide.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ios University at Carbondale.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Holland, J. L., Dia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Hoyt, K. B. (1997).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5), 551-558.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157-187. New York: John Willy & Son.
- Munley, P. H. (1975). Erik Erikson's theory of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vocati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314-319.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7, 151-163.
- Super, D. E. (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Super, D. E. (1976). Career education and meaning of work. Washington, D.C.: U.S. Office of Education.
- Tiedeman, D. V. (1961). Decision and vocational development: A paradigm and its implication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0, 15-20.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 Vondracek, F. W., Hosteler, M., Schulenberg, J. E., & Shimi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Vondracek, F. W. (1992). The construct of identity and its use in career theory and research.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130-144.
- 1 차원고접수 : 2010.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0. 12. 31.
최종게재결정 : 2011. 9. 1.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1, Vol. 30, No. 3, 743-762

The Influence of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on Career Maturity

Yun Hee Choi

Kwangwoon University

Soon Ja Kim

Luth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the Ego-identity of a child from an international marriage on career maturity of multicultural youth. The questionnaires were done by 125 students in 13-20 years old who attend general schools and alternative schools of 10 prim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located in Gyeonggi, Seoul, Jeonnam and Chungnam where famil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are intensively distribu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school type, scholastic achievement, fluency in Korean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affect sub-factors with respect to the difference in the ego-identit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it is found that dual self-regulation of national identity affects sub-factors of variables when gender, school type, scholastic achievement and higher and fluency in Korean language is better in the case of career maturity. Second, it is found that ego-identity and career maturity are in correlation and the sub-factors of ego-identity which affects the average of career maturity are self-receptivity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Finally, it is found that subjectivity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career maturity(-), confidence in the future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career maturity(+), subjectivity affects the involvement of the determination of career maturity(-), self-receptivity affects the involvement of career maturity(-), initiative affects the independence of the career maturity (+), confidence in the future affects the career maturity(+) and self-receptivity affects the compromise of career maturity(+) in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of sub-factors of ego-identity and those of career maturity. This may imply that the higher ego-identity of multicultural juvenile is the higher career maturity is and if they trust self-receptivity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to heighten the above they will adapt to the school and perform the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ir course. Thus, this result becomes the milestone that can be utilized in the field of career education and consultation so that children in the family of international marriage can overcome the difficulty of double culture through difference and individualization of general school and alternative school as the principal of multicultural society. Further, it suggests that more consultation is required in the aspect of ego-identity based on the double self-regulation of multicultural juvenile and its career maturity.

Key words :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Multicultural Youth, Ego-Identity, Career Maturity